

## 일부 사람들은 SAT 와 ACT 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것이 새로운 흐름의 시작일까요? 현재 *U.S. News* 상위 25 개 대학 중 6 곳이 다시 SAT 또는 ACT 점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대한 논의는 2024 년 1 월 \*\*데이비드 리언하트(David Leonhardt)\*\*의 기사 *"The Misguided War on the SAT"*가 대학 입학 과정에서 표준화 시험의 폐지를 비판하며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대학들이 형평성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점점 더 많은 시험 선택제(test-optional) 정책을 채택하는 가운데, 리언하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역설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SAT 와 ACT 의 예측 능력, 사회, 경제적 및 인종적 경계를 넘어 재능을 식별하는 역할, 그리고 이 시험들을 배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찾으려고 합니다.

리언하트는 COVID-19 팬데믹 동안 표준화 시험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시험 선택제 입학 정책의 맥락을 설명하며 논의를 시작합니다. 임시 방편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현재 많은 대학에서 영구적인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표준화 시험이 인종 및 사회, 경제적 점수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오랜 비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과 시험 준비 서비스와 같은 자원 접근성 부족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리언하트는 이러한 불평등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초점이 시험 자체로 잘못 맞춰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SAT 와 ACT 가 불평등의 원인이 아니라, 불평등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기사는 대학 입학에서 표준화 시험이 가지는 독특한 강점을 강조합니다. 리언하트는 고등학교 GPA 가 성적 인플레이션과 커리큘럼 난이도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반면, SAT 와 ACT 는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비교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SAT 점수가 고등학교 성적보다 대학 성공을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를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 *Opportunity Insights* 가 아이비리그 대학과 다른 명문 대학을 포함한 **Ivy Plus**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AT 점수가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나 유망한 직업 확보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리언하트는 또한 표준화 시험이 소외된 배경에서 성장 했지만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높은 시험 점수를 기록할 경우, 이는 뛰어난 재능과 학업적 준비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표준화 시험 없이 입학 사정관들은 교외 활동, 에세이, 추천서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가치가 있지만, 종종 자원이나 전문가의 지도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부유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리언하트는 표준화 시험을 없애는 것이 입학 과정을 더욱 불투명하고 부유층에 치우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사는 시험 선택제 정책이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일부 연구는 이러한 정책이 소수 집단의 지원자 수를 소폭 증가시킨다고 제안하지만, 리언하트는 그보다 더 큰 영향을

의문시합니다. 그는 시험 선택제 정책이 주로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원자 수를 증가시켜 대학의 선택적 순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시험 점수 제출 여부와 경쟁력 있는 지원서를 작성하는 기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은 점수 제출이 선택 사항이라 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을 더 높은 비율로 입학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시험 선택제 정책의 형평성 논리를 약화시킵니다.

리언하트는 표준화 시험에서 벗어나려는 변화의 정치적·문화적 요인에도 비판을 제기합니다. 그는 SAT와 ACT에 대한 반대가 진보적 사안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시스템적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반대가 종종 시험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를 간과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리언하트는 2020년 \*\*캘리포니아 대학교(UC)\*\*가 SAT와 ACT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을 때 내부 연구에서 SAT 점수가 고등학교 성적보다 학생 성공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가 이러한 결정을 주도했다고 지적합니다.

리언하트는 표준화 시험을 다시 요구하기로 한 MIT의 사례를 강조합니다. MIT는 팬데믹 동안 시험 요건을 잠시 중단한 후, 15년간의 입학 데이터를 분석해 시험 점수가 지원자의 학업 준비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험 점수가 없을 경우, 입학 사정관들은 성공할 학생과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구분하기 어려워했습니다. SAT와 ACT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MIT는 다양성과 학업적 엄격함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리언하트는 MIT의 접근 방식이 다른 명문 대학들의 시험 선택제 정책과 대조되며, MIT의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입학 정책을 반영한다고 평가합니다.

기사는 표준화 시험 점수에서 나타나는 인종 및 사회, 경제적 격차에 대한 오해에도 주목합니다. 비평가들은 종종 이러한 격차를 시험 자체의 편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리언하트는 이러한 격차가 시험의 결함이라기보다, 더 넓은 사회적 불평등의 증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버드 경제학자 \*\*라지 체티(Raj Chetty)\*\*를 인용하며, SAT를 "교육 기회의 근본적인 차이를 포착하는 고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리언하트는 표준화 시험을 폐지한다고 해서 이러한 격차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가리는 결과를 초래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리언하트는 표준화 시험을 대학 입학에서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는 시험의 예측 능력과 다양한 맥락에서 재능을 식별하는 능력이 고등 교육에서 탁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리언하트는 표준화 시험에 대한 반대가 오늘날의 정치적 분열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분열된 국가에서, 표준화 시험이 쓸모 없거나 역효과를 낳는다는 생각은 진보주의의 신조가 되었다." 그는 일부 비평가들이 SAT와 ACT를 대학 입학 불평등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지만, 이 시험들이야말로 학생들의 삶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